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나무와 산은 움직임이 없다

조주 스님은 문하 대중에게 설법했다.
“조금이라도 옳다느니 그르다느니 하는 분별심이 일어나면 곧 분마음을 잃어버리고 만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응할 말이 있는가?”
어떤 스님이 나오더니 사미승을 손바닥으로 한대 치고는 그냥 나가버렸다. 스님은 곧 방장실로 돌아갔다. 다음 날이 되어서 시자에게 물었다.
“어제 그 스님은 어디에 있는가?”
시자가 말했다.
“그때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30년이나 말을 닦았는데 당나귀에 내동댕이질 당하다니.”

師示衆云 纔有是非紛然失心 還有答話分也無 有僧出將沙彌打一掌 便出去 師便歸方丈 至來日問侍者 昨日者師僧在什麼處 侍者云 當時便去也 師云 三十年弄馬騎 被驢子撲

30년 동안 말을 닦았다고 말한 것은 80세 이후 조주 동쪽 관음원에서 교화를 편지 30년이 지났다는 것이다. 본 문답이 이루어진 시기가 110세 임을 알게 해준다.
옳다 그르다 분별하고 따지는 사람은 진실을 모르는 자이다. 평생 시비분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죽을 때가 다행도 도에 대해 조금의 이해도 못하는 것이다. 진실을 아는 자라면 절대 분별을 일으키지 않는다. 모든 붓다들도 다 그랬다. 여기에 대해 그 누가 감히 대응할 수 있

단 말인가?
조주 문하에는 이에 대응한 결출한 인제가 있었다. 그 인제는 조주 스님의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사미를 한대 치고 그냥 산문 밖으로 나가버렸다. 앞 따고 가지 치는 소출한 심량이 아니다. 가히 입제 스님과 같은 기상이 있다. 부처와 조사를 한 구덩이에 몰아넣고 덮어버릴 기개이다. 그는 하늘 아래 ‘유아독존(唯我獨尊)’이다. 이름하여 ‘잠 부처’이다. 아무도 그를 가사와 발우로 속박하지 못할 대자유인이다.
오늘날에도 이런 결출한 인제는 있는가? 조주 스님과 천하중사를 내동댕이질 기백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있다면 말해보라. 그대 자신은 무엇인가?

학승이 물었다.
“이처럼 찾아온 사람을 노스님께서 교화하십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교화한다.”
학승이 말했다.
“이처럼 찾아오지 않는 자도 노스님은 교화하십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교화한다.”
학승이 말했다.
“이처럼 찾아오는 자는 노스님의 교화에 맡깁니다만, 이렇게 찾아오지 않는 자를 노스님께서 어떻게 교화하십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그만뒤, 그만뒤! 말할 필요가 없어. 나의 법은 불가사의해.”

問 與麼來底人 師還接也無 師云接 云不與麼來底人師還接也無 師云接 云與麼來從師接 不與麼來師如何接 師云 止止不須說 我法妙難思

기차를 타고 여행 해보면 틀림없이 주변의 나무들과 산들이 지나가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기차가 중지하면 나무들과 산은 본래 움직인 적이 없었다는 것을 알 것이다. 나무와 산은 움직임이 없다. 이처럼 세상은 본래 아무 문제가 없다. 이미 구원되어있다. 이미 완전하다. 모든 사람은 다 붓다이다. 다만 사람의 마음이 탐진치(貪嗔癡) 삼독으로 움직임을 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이다. 만약 움직이는 마음만 쉬다면 본래 아무 문제없는 세상의 진실이 나타난다.
조주 선사는 깨달은 붓다이다. 찾아온 사람은 당연히 교화한다. 깨달은 자가 있는 이상 찾아오지 않아도 그를 교화한다. 그래서 선사의 법은 불가사의하다. 그러면 찾아간 자가 이미 부처인데, 다시 또 무엇을 깨달을 것인가라고 질문한다면, 내방자의 질문이 문제라고 하겠다. 궁극은 고요한 호수에 파문이 일어나는 것과 같다. 수행자에게 궁극은 가장 큰 장애이다. 그러나 이 장애를 통하여 도(道)를 이룬다.

무불선원 선원장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㉞



여래는 사치스럽게 살지도 않았고, 정진을 포기하지도 않았다 <맛지마 니까야 26>

그들의 같은 언제나 금소를 향해서 찢러 들어간다. 여기에는 인정사정 봐줄 일은 없다. 정으로 서로의 처지를 공유한다는 것은 친구 사이에만 있을 수 있는 법. 한때 수행을 같이했던 길벗들에게, 이제 부처님이 ‘스승’으로서의 입장을 세워가려 한다. 그러니 어떻게 인정사정으로 바랄라 하겠는가. 그렇게 해서 ‘스승’이 될 수 없다.
다섯 수행자를 역시 서술이 퍼렇다. 격론과 격론의 진검승부 속에서, 이기는 자는 스승이되고 지는 자는 제자가 된다. 당시 인도종교계의 분위기가 그러하였다. 먼저 공격을 한 것은 새로운 지도자로 인정받고 싶은 부처님이었다. “비구들이여, 귀를 기울이라. 나는 불사의 경지를 성취하였다. 나는 가르치리라. 그대들에게 답마를 가르치겠다.”(일야역편, <한권으로 읽는 빠알리 경전>, 민족사)

수비를 하면서 공격이 가능한 방식이다. 당신은 이미 고행을 버렸다. 그러므로 사치스럽게 살았지 않는가? 정진을 하지도 않았을 것 아닌가? 또 풍요로운 생활로 돌아간 것이 아닌가?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불사의 경지를 얻고 답마를 알게 되었다 할 수 있는가? 우리는 믿을 수 없다. 이런 논리이다.
여기서 우리는 착안해야 한다. 해탈 여부는 안에 있어서 쉽사리 보이지 않지만, 생활은 밖에 드러나 있어서 다 보인다는 것을. 생활의 문제, 사치를 했느냐, 생활이 풍요로운가 하는 문제는 누구나 쉽게 보고,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만큼 세속적인 것이다.



그림 · 박구원

그러나 저를 역시 만만한 상대는 아니다. 이내 날카로운 칼로 금소를 찢러온다. 부처님이 얻었다고 자만하는 불사의 경지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뼈를 깎는 듯한 고행을 포기하지 않았는가 말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탈을 얻었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그들의 반론은 그러한 취지에서 행해지고 있다. 그 중에 뼈를 건드리는 말이 있다.
“그대는 지금 사치스럽게 살고 정진을 포기하고 풍요로운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부처님의 입장에서 이 말은 시급히 해명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였던 것 같다. 다른 어떤 주제에 대한 반론보다도 먼저 이 문제에 대한 해명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여래는 사치스럽게 살지도 않았고, 정진을 포기하지도 않았고, 풍요로운 생활로 돌아가지도 않았고, 풍요로운 생활로 돌아가지도 않았다.” 거의 항변(抗辯)으로 들린다.
정말 부처님이 얻었다고 하는 ‘불사의 경지’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쉽게 검증할 수 없었을 것이다. 적어도 부처님과 같은 경지에 올라본 분이 아니라면 뭐라 말하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다섯 수행자들이 불사의 경지나 답마(法) 자체에 대해서, 그 정당성 여부를 심판하겠노라고 나서지 못했다. 그보다는 쉽지만 안전한 길을 택한다.

가난하게 산다고 도가 얻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지만, 사치와 풍요로운 생활로 시간을 보냈다고 해서야 어찌 다른 사람의 믿음을 얻을 수 있겠는가. 더 이상 어떠한 이야기도 통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점을 부처님께서도 익히 알고 계신다. 그렇기에 먼저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다. “여래는 사치스럽게 살지도 않았고, 정진을 포기하지도 않았고, 풍요로운 생활로 돌아가지도 않았다.” 시대는 많이 흘렀다. 아무리 출가하신 스님이라 하더라도, 옛날 부처님이 살듯이 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기는 하더라도 세속사람들로부터 사치를 하는 것으로, 풍요로운 생활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면 그들의 믿음을 얻을 수는 없을 것이다. 나부터 “나는 사치스럽게 살지도 않았고, 정진을 포기하지도 않았고, 풍요로운 생활을 하지도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주성원의
기초 교리 <10>

팔정도-②정사유(正思惟)

흔히 현대사회를 정보화 시대라고 한다. 신문, 텔레비전, 잡지, 인터넷 등에서 끊임없이 정보가 흘러넘치고 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정보의 유입으로 이제는 사람들이 더 이상 정보를 쫓아가기도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모른 채, 오늘날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현실이다. 판단력은 흐려지고, 거짓 정보에 일희일비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갖대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바른 판단에 관련된 불교 수행법이 바로 팔정도의 정사유(正思惟)이다. 정견(正見)에 이어 두 번째 실천덕목인 정사유는 바른 사유, 즉 바르게 생각한다는 뜻이다. 한국어에서 ‘사유(思惟)’의 사전적 의미는 ‘생각하고 궁리하는 것’으로, 개념·구성·판단 등을 하는 인간의 지적 작용을 말한다. 이에 비해 불교에서 사유는 ‘분별(分別)’을 가리킨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사량분별(思量分別)’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대상을 나누고 쪼개어 식별한 후 그것에 대해 판단하는 마음의 작용을 의미한다. 즉 대상을 주관적으로 분석한 뒤에 좋은 것과 나쁜 것 등을 나누는 판단 작용이다.

욕심·분노 벗어나 바르게 판단하는 수행

이 판단 작용, 즉 분별심(分別心)은 눈에 보이는 물체를 대상으로도 일어나지만, 진리, 신(神) 등과 같은 추상적인 것을 대상으로도 일어난다. 따라서 불교에서 말하는 ‘사유’와 현대 한국어의 사전적 의미의 ‘사유’는 크게 다른 말이 아니다. 다만 불교에서는 무명에 싸여 탐(貪)·진(瞋)·치(癡) 삼독(三毒)에 빠진 중생들이 사유하게 되면 대상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라 왜곡해서 보게 되고, 그로 인해 항상 번뇌를 일으키게 되므로 다소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무명 속에 있는 ‘중생의 사유’에 한해서일 뿐이다. 그래서 사유는 바르게 해야 하며, 바른 사유를 통해야만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정사유’의 큰 틀에서의 첫 번째 의미이다.
정견(正見)에 의해 사성제를 바로 알고, 마음이 바른 방향으로 향해 있다면 매순간마다 생각하는 방법도 바르게 되고 자기중심적인 욕망, 분노 등에서 벗어나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즉 정사유는 정견을 얻은 뒤에 그것을 깊게 사고하고 음미하며 되새기는 노력을 가리킨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견’ 한 후, 그 가르침이 정사유를 통해 내면적으로 깊이 성찰되어야 다음의 팔정도 정어(正語)·정업(正業) 등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학습한

이론을 몸으로 체득해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과도 같다. 정견을 통해 있는 그대로의 이치를 바르게 보았다면 다음에는 본 그대로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이 올바른 판단의 기준에 대해서 <주석경(註釋經)>에는 탐욕이 없는 생각, 분노가 없는 생각, 살아있는 것을 해하려 하는 마음이 없는 생각의 세 가지로 나누어 설하고 있다. 즉 욕심, 분노, 해치려는 마음이 없는 생각이 정사유인 것이다.
이것은 삼화(三火)라고도 불리는 삼독을 다스리는 마음과도 같다. 정사유는 삼독의 탐진치(貪嗔癡)를 다스리는 마음 수행도 되는 것이다.
<법구경(法句經)>에도 ‘탐욕과 같은 불길이고, 노여움과 같은 죄도 없으며, 미망에 비할 그물[속박]도 없다’고 설하고 있는 것처럼 삼독심은 사람의 인성을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독소이다.
마음으로 짓는 세 가지 악업인 삼독을 정사유를 통해 다스리게 되면 다른 생명에 해를 끼치는 마음은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자비심도 솟아나게 된다. 이처럼 좋지 않은 생각을 버리고, 약한 마음이 생겼을 때 자비심과 사리(바른 사유)가 정사유이며, 늘 자비심이 머무는 것이 정사유인 것이다.

日興대학 불교학석사·前 본지기자



빙의(귀신병) · 신병 · 퇴마 천도재 전문도량



매월 지장재일은 무보시 천도재

**우울증, 공황장애, 수험생 집중력증가,
약물게임중독, 전생체험**

**- 교육생수시모집 -
최면술, 퇴마술, 기공술, 자극요법술**

한국빙의 · 퇴마 · 최면연합회본부
한국근본불교조계종총무원 / 송림사 주지 현오 합장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89-13번지 상담전화 02)357-4554 / 010-5656-3915

NAVER Do!um 에서 현오스님 을 검색하세요

포교원(금)안내

- ◆ 위치: 부산시 북구 화명동 소재
- ◆ 화명지하철역 1분거리 ◆ 3층 50평
- ◆ 가액: 전세 2천만원 월 55만원
- ◆ 시설비 1천만원

010-9229-3801